

광주·전남 年 1천억원 '원정쇼핑'

광주신세계 카드 회원 2010년 한해에만 124억원 사용 89% 수도권 백화점서 명품 구입...자금 역외유출 심각

광주·전남 지역민이 서울·부산을 비롯한 원정쇼핑으로 연간 수백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카드회원들은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124억원을 수도권 등 타지역 백화점에서 사용했다. 롯데·현대 백화점 광주점 카드회원을 비롯해 신용카드까지 집계할 경우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쓴 금액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3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신세계 백화점 카드회원들의 사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7만3400명이 다른지역 백화점에서 298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원정쇼핑 고객은 지난 2009년 2만4400명에서 2010년 3만1700명으로 29.9%가 증가했으며, 상품 구매액도 2009년 98억원이었던 것이 1년 사이 26.5%나 급증하면서 124억원의

기록했다. 이들 원정쇼핑 고객은 주로 명품을 구매하는데 지갑을 열었다. 지난 2010년 원정쇼핑에 나선 고객들 중 30% 달하는 9300명이 명품 구입을 위해 수도권 등 타지역 백화점을 찾았으며, 모두 110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광주신세계 백화점 카드회원들이 원정쇼핑으로 사용한 금액 중 90%를 육박하는 수치다.

광주신세계는 전국 2번째 매출을 자랑하는 루이비통을 비롯해 페라가모와 크리스티 디올, 버버리, 알마니 팔레지오니 등 5개 명품점포가 연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명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전체 고객 중 6%에 불과하지만 연 매출의 26%를 책임지고 있다. 때문에 광주신세계를 향한 명품 브랜드들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 광주 지역에 입점하지 않은 샤넬과 프라

다, 구찌 등이 신세계백화점 본사를 통해 입점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신세계는 터미널 시설을 이용해 입주한 여건을 17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 VIP 고객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대백화점이 서울지역 백화점 이용하는 지방 고객들의 매출성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지방고객들은 현대백화점 서울 점포 중 명품 종류가 가장 많은 압구정 본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 본점이 서울지역 점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지방고객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명품, 화장품, 골프의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통업계는 오는 2014년 말 호남선 KTX(오송~광주간)가 개통할 경우 원정쇼핑에 나서는 고객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와 수도권 통행시간이 기존 2

시간39분에서 1시간33분으로 68분이 단축되면서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수도권으로 원정쇼핑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와 달리 대구는 KTX 개통으로 편리해진 접근성을 이용해 경북, 경남, 충청권 등 주변 지역 상권 유입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짓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KTX 개통 대비 지역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광복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KTX 개통 후 대구경제는 여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며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지역에 매력적인 유통서비스 공간을 연출해 지역 방문 빈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명품브랜드는 단순 매출증가를 넘어 집객효과와 엔터테인먼트 효과까지 있어 국내 백화점들이 명품브랜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광주신세계는 현지법인으로 지역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LG전자가 냉방 성능을 높인 상가용 천장형 에어컨 '인버터W'를 23일 출시했다. LG전자 모델이 인버터W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건설협회 박치영 회장 연임 27일 추대...전남은 김영구 부회장 유력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 차기 수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차기 회장에는 박치영(67·모아종합건설 회장) 현 회장이 추대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전남도회는 최승준 회장이 연임을 고사해 다음달 14일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어려운 지역 건설업계 상황과 건설인들의 화합을 고려해 경선보다는 추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지난

16일 제9대 회장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치영 현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열어 박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박 회장의 임기는 2015년 6월까지 3년간이다.

건설협회 전남도회도 23일 '제20대 회장선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후보등록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박치영 회장

다음달 3일 까지이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는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나주 중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열린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영구(세진종합건설 대표이사) 현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육성위원장, 북부권협의회 의장 등 역임하는 등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사정이 밝다. 김 부회장의 단독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감원, 금융상품점검 테스트포스 발족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역세 금감원 원장은 23일 불발리 한 약관 보완, 가격구조와 수수료 체계 개선, 정보제공 강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금융상품점검 테스트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변액보험 수익률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생기는 TF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상품들의 현황을 파악해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다. 권 원장은 "금감원 현장상담반이 매주 1개 지역을 사흘간 방문해 피해자 상담과 제도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도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절실하며 수도권과 지방별로 홍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대졸 인턴사원 모집...30일까지 지원서 접수

기아자동차는 내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지원서는 이달 30일 오후 3시까지 기아차 채용 홈페이지(recruit.kia.c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는 일반사무 부문의 경영 기획, 재경, 해외영업·마케팅, 국내영업·마케팅과 생산부문의 생산(공장),

품질, 생산기술, 구매 등이다. 전형 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이다. 최종 선발되면 여름방학 기간에 5주 동안 자동차산업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실습기간 말은 프로젝트 성과가 좋거나 근무 평가가 우수한 인턴사원은 정식으로 채용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이솔루션 박용관(왼쪽에서 세번째)·추안구(네번째) 사장과 알카텔-루센트 산하 벨연구소 앤디 자일스(두번째) 사장이 최근 오이솔루션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 광통신 기술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 광통신업체 오이솔루션 알카텔-루센트와 연구개발 협약

광주 대표적 광통신업체와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가 손을 잡았다.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오이솔루션(대표이사 박용관·추안구)은 최근 프랑스의 세계적 통신장비회사인 알카텔-루센트와 디지털 광통신 기술과 무선 백홀 관련 광인터페이스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4G 이동통신

신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으로 100% 이상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트래픽 문제를 광통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오이솔루션은 광통신용 송수신모듈업체로 지난해 매출 473억원, 경상이익 38억원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석유화학 에너지 사업 2배 확대 4300억 들여 여수 제2에너지 증설

2016년부터 年3000억 매출 금호석유화학이 에너지 사업을 2배로 확대한다. 금호석화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열병합발전소인 여수 제2에너지 증설을 결의하고 2015년까지 43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호석화는 여수 제2에너지에 시간당 400t의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2기, 145메가와트(시간당)급 발전기 1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2015년 말 증설이 완료되면 금호석화의 에너지 총생산능력은 2배 확대

된다. 유틸리티는 시간당 910t에서 1710t으로, 발전용량은 시간당 155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로 늘어난다. 이는 금호석화와 화학계열사 생산 공정에 필요한 스팀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남은 전기는 전량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금호석화는 여수2에너지 증설로 2016년부터 연간 3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 제1에너지와 2에너지를 합할 경우 2016년 에너지 사업분야 연매출은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 근로자 날 증시 휴장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전채 증권시장(주식시장, 사장지수권드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등)과 파생상품시장을 모두 휴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72.63 (-2.02)
코스닥지수	495.02 (+2.54)
금리 (국고채 3년)	3.46% (-0.03)
원·달러 환율	1,139.50원 (+0.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제14회 **담양**

대나무축제

대나무의 신비, 문화예술의 만남

the 14th Damyang Bamboo Festival

2012. **5.1** | Tuel - **5.6** | Sun | **6일간**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관방제림 일원

NAVER (+Mobile) 제14회 담양대나무축제

주최 | 주관 담양군/(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